



3면

靑 "사라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하지 않겠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윤 4월 27일) 제25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지사, 체육발전 소통 행보

전주여고 3학년 코로나 확진

시·군 체육회장 순회 간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 청정전북 지킬 수 있도록 '생활속 거리두기' 당부

전북도가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시·군 신입 체육회장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도는 17일 송하진 도지사과 시·군 체육회장이 함께하는 순회 간담회를 3차례 (6월 17일, 19일, 25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까지 각 시·군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송지사와의 첫 상견례 자리로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간담회가 미뤄졌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첫 간담회에는 송하진 도지사, 정강선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박종운 전주시체육회장,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이준준 완주군체육회장 등 4개 시·군 체육회장이 참석, 익산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유지,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및 체육행사 하반기 연기 등 여러모로 도와준



도 및 4개 시·군 체육회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체육광장지도자의 활동 중단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136명에게 활동수당(월 40만원)을 선지급, 다중이용시설(체육관,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에는 마스크 1만200매, 손소독제 4,080개, 살균소독제 2,04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로 연기된 체육 행사에서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우리의 일상과 청정전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만큼 전북체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고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도자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체육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체육 발전에 늘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9일 강광 정읍시체육회장,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 오교만 고창군체육회장, 안길호 부안군체육회장 등 4개 시·군체육회장과

김제사에서, 25일에는 양심목 남원시체육회장,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양영수 순창군체육회장 등 6개 시·군체육회장과 남원사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2차 검사도 '양성' 전북 22번째... 가족들은 모두 음성

전북지역 2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A(18)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서도 양성판정이 나왔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민간검사기관(씨젠)에 이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A학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에서도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A학생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시작했다. A학생의 가족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A학생이 다니는 전주여고와 학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전주여고의 학생(1~3년)만 800명과 교직원 83명 등 8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원장·교사 11명과 학생 68명 등 77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A학생의 가족인 부모와 동생의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전달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별개로 A학생의 가족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된다.

학교와 학원 등 A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960명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대량 검사가 가능한 취약검사법(pooling 검사)을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날 중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와 학원을 소독하고 A학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관련, A학생은 전날 등교 후 두통과 발열(38.1도) 증상을 보였다.

그날 오후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1차 검체채취를 가졌다. 전주시보건소는 민간검사기관(씨젠)에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왔다.

이날 방역 당국은 재차 A학생의 검체채취를 통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2차 검사를 가졌다. 전북에서는 5월 19일 이후 29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다.

전북도 관계자는 "A학생에 대한 밀접접촉자 분류 및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교 및 학원 등 추가 확인되는 활동장소에 대해 소독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교개학 이후 전주여고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여고에 대해 18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18일 실시 예정이던 고3 모의평가는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5명 대상이다. 고 1.2 학력평가는 자율적으로 치러진다.

/유호상 기자·장은성 기자



전주시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정된 17일 학교 내부에 있던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완주 '웅치전투' 격전지 입증

소양 신촌리 일대 토양 채취결과 조선군 무덤 확인

완주군 소양면이 웅치전투의 격전지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됐다.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방어를 이끌며 조선 승리의 중요 요인이었던 '웅치전투'의 격전지가 소양면 신촌리 일대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완주군은 조선왕조실록·국조보감 등 사료에 남겨진 웅치전투의 실증자료를 확보하고자 전투지로 추정되는 옛 웅치길(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진안 부귀면 세동리) 일원

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존 조사에서 성황당 터·봉화터·진지터 등의 유적들을 확인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적에서보다 명확한 실증자료를 얻기 위해 유적 토양을 채취하는 작업을 펼쳤다.

군은 시신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총인·총칼슘 함량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황당 터의 토양이 주변 일반토양과 비교했을 때 인과 칼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웅치전투 당시 치열한 전투로 인한 무덤이 있었다는 역사기록을 입증하는 근거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조선군 무덤이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웅치전투야말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호국완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며 "이를 널리 알려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려 침략한 왜군과 맞서 싸운 전투로 진안에서 넘어오는 고갯길에서 큰 타격을 입고 완주 소양평에서 격퇴해 왜군의 야욕을 무력화시켰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방어를 이끌며, 조선 승리의 중요 요인이었던 '웅치전투'의 격전지가 소양면 신촌리 일대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의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당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

비록 지금, 봄을 만끽할 수 없지만
지쳐있는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